성균관대 기술지주회사, 액셀러레이터 등록

스타트업 발굴… 창업 열기 이끈다

초기창업자에 투자·지원 혜택
보유 지적재산기반 성과 극대화
교육·연구에 재투자… 선순환구조

성균관대 산학협력센터

성균관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등록하고 제2벤처붐 이끈다.

성균관대학교는 4일 "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유필진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산학협력부단장)가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전문적인 창업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투자하는 등 전문보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벤처부에 등록되면 개인투자조합 결성 권한 부여 및 각종 세제 혜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대학기술지주회사 전용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여 대학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제2벤처붐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성균관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국내 대학형 액셀러레이터에 합류함으로써 대학 우수기술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2벤처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필진 교수는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통해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성균관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2012년 설립 이후 대학 내 교원·연구원들의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11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신천지, 군대를 사랑한 밀덕집단

〈군사매니아〉

문형철 기자의 국방 칼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는 '세계평화'를 표방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내부증언과 자체행사 영상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잘 훈련된 군사조직을 방불케 한다.

군을 잘아는 예비역 간부나 군사매니아(밀덕)마저도 이들을 '군대를 사랑하는 밀덕단체'라고 부를 정도다.

신천지의 수장인 이만희 총회장은 내부 행사 등에서 자신의 한국전쟁(6.25) 참전 경험 등 군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의 대변지로 알려진 매체의 고위관계자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군 관련 행사보도 등으로 군 인맥을 형성한 온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신천지의 위장단체 중 하나로 알려진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하 HWPL·대표 이만희)은 2012년 설립돼 '세계평화'와 '전쟁종식'을 활동 목적으로 내걸고 있지만, 이 단체가 주관한 '만국회의' 군사의 전을 방불케 한다.

신천지 12지파를 상징하는 색상의 유니폼을 입은 참석자들이 '좌대각', '우대각' 같은 군의 분열대형을 유지하며 큰걸음으로 입장하고, 객석을 향해 경례를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의총기를 휴대한 자체 의장대, 군악대를 연상하는 마칭밴드, 전통의장대까지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천지의 하늘군대라고 불리는 의장대의 의장행사는 아마추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훈련돼 있다. 이들은 국군 삼군의장대를 연상케하는 제복을 갖춰입고 칼러파츠(모의총기를 실총과 구분하는 원색 부품)가 없어 마치 실총처럼 보이는 M16 소총에 대검을 장착하고 의장시범을 보인다. 물론 컬러파츠 없는 모의총기는 모의총포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일부 보훈단체에서도 신천지와 군 및 보훈단체의 연계가능성이 적잖게 제기된바 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증서, 2016년 그가 수여받은 호국영웅기장(2013년 제정)의 메달이 HWPL의 로고와 닮았다는 의혹제기도 나온다.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하는 군 조직에 신천지가 깊게 스며있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captinm@

文 대통령, 3년연속 사관학교 졸업식 참석

취임 후 첫 공사 졸업·임관식 참여
매년 각 軍 사관학교 찾아 격려
"스마트 항공우주군 주역, 자부심"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졸업 및 임관식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8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2018년 육군사관학교, 2019년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여한데 이어 3년 연속 각 군 사관학교를 찾은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2017년 육·해·공군 신임 장교 합동 임관식을 폐지하면서 문 대통령이 해마다 각 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임관식에 앞서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영원한 빛' 추모비에 헌화했다. 추모비는 공군 창군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공중 근무자 391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2010년 건립됐다.

헌화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영공수호를 위해 하늘에서 산화한 영웅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화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함께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헌화에 이어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격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군, 믿음과 희망의 청년 장교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청년 장교들은 앞으로 조종사, 방공무기통제사, 정비사, 행정장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스마트 항공우주군'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김일목 총장, 1.2억 기부… 취임 첫 행보

〈삼육대〉

김일목 삼육대 총장(오른쪽), 김정숙 대외협력처장 /삼육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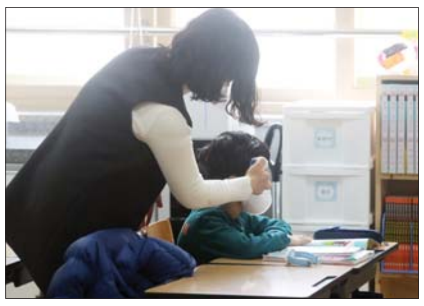
삼육대 김일목 신임 총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행보로 대학 발전기금을 납부했다.

김 총장은 3일 김정숙 대외협력처장을 찾아 대학 발전기금 1억 25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서 교수와 직원들이 몇 년간 호봉을 동결하고 예산을 감축하는 등 많은 애를 쓰고 있다"면서 "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수들의 연구지원에 나부터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취임 전부터 삼육대에서 교수와 직원 통틀어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이로 꼽힌다. 1996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24회에 걸쳐 총 7250여만원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발전기금으로 납부해 왔다. 이번 기부로 누적 2억원을 채우게 된다. /한용수 기자

긴급돌봄교실 참여율 40%… 첫날보다 하락


돌봄교실 체온 측정 /연합뉴스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마련된 긴급돌봄 교실 운영 이틀째 참여율은 첫날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학생, 교직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대구 방문 등을 이유로 자율격리 중인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직원은 15명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 참여율은 40.1%다. 학생 1만3506명이 신청했으나 실제 교실을 찾은 학생은 5421명에 그쳤다. 전날 43.8%(2일 오전 9시 기준)와 비교하면 약 4% 줄었다.

유치원의 긴급돌봄 교실 참여 비율도 높지 않다. 교육청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791곳의 유치원에서 1만2749명이 돌봄 교실을 신청했지만 이중 44.8%인 5707명만 실제 참여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공립단설 유치원 35.0%, 공립병설 유치원 39.2%, 사립 유치원 46.3% 등이었다.

서울지역 학교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확인된 3명(학생 2명, 교직원 1명)에서 변화가 없었다. /김현정 기자

성신여대, 대구·경북 학생에 위문품 전달

성신여대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거주 학생들을 위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성신여대는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감염 예방 물품을 비롯해 비타민, 초콜릿 등을 대구·경북지역 거주 학부생과 대학원생 300여명에게 전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개강을 앞두고 예기치 못했던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 학생과 가족의 걱정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교직원들이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이 해결돼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교정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경북지역 출신인 조수미 학생(영어영문, 18)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 매우 감사했고, 다른 학생들도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감동 후기를 많이 남겼다"며 "고향에 계신 아버지 또한 정성이 담긴 의미 있는 선물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개강을 연기하고 개강 이후 2주간 재택 수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